

관계를 세우시는 성령님

사도행전 20:1-6

1소요가 그치매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2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3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4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뢰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5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6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성령께서는 관계를 만드시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

제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에 가장 전설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은 스포츠를 초월하여 세계적인 아이콘이 된 운동선수였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마이클 조던입니다. 그가 선수로 뛰던 시절보다도 훨씬 더 천문학적인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에어 조던 운동화 외에도, 마이클 조던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의 이력서, 즉 그의 기록과 업적이었습니다. 챔피언십 6회, NBA 파이널 6전 전승(6승 0패), 여러 차례 MVP 수상, 그리고 그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혼자서는 그것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팀 동료들이 있었고, 코치들이 있었으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클 조던을 만들어 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안타까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영광의 시절에 그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에어니스(His Airness)”였던 그를 향해 등을 돌리고 나섰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려울 정도지만, 바로 스카티 피펜입니다. 많은 냉소주의자들은 피펜이 더 많은 책을 팔기 위해 조던을 비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누구도 스카티 피펜이 그 시절 시카고 불스 팀의 중심 인물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피펜 자신도 이것은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조던에 대해 온갖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모든 사람들에게 거만하게 행동했는지부터, 사실은 형편없는 농구 선수였다는 주장, 그리고 역사상 최악의 팀 동료였다는 주장까지 말입니다. 피펜은 자신과 조던이 애초부터 친구가 아니었으며, 경기장 밖에서는 거의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 여러 해가 흐르는 동안, 마이클 조던의 명성은 그 시절 시카고 불스 왕조에 함께했던 여러 전직 선수들과 관계자들로부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NBA를 지배하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포츠 왕조 중 하나를 이루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불스 왕조를 관통하는 한 가지 핵심적인 특징은 이것입니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하라. 그리고 그 대가는 종종 깨어진 관계들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대가는 역대 최고의 농구 선수와 그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였던 스카티 피펜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피펜 역시 역대 최고의 선수 50인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선수였습니다. 저는 누구를 판단하려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시절 불스 팀의 라커룸 안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 중 누구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압니다. 최종 목표가 승리이거나, 성공을 이루는 것이거나,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일 때, 관계는 종종 그 목표보다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명예의 전당에 오른 미식축구 감독 빌 파셀스(Bill Parcell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록이 말해주는 바로 그 사람이다.”
(You are what your record says you are.)

그는 어떤 팀들은 기록보다 더 재능이 많고, 혹은 어떤 팀들은 기록만큼 좋은 팀이 아니라는 평론가들의 주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17대 16으로 경기에서 이겼다면, 당신은 승자입니다. 만약 당신이 16대 17로 졌다면, 당신은 패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살아가는 공식입니다. 당신은 성과를 내고 있는가? 당신의 회사는 이익을 내고 있는가, 아니면 손해를 보고 있는가? 당신의 처음 사업 계획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혹은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얼마나 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세상적인 관점에 한 발을 담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일해야 하고, 생산해야 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방식 사이에는 반드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최종 결과나 승패 기록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교회에 몇 명이 오는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가 정말 구원받았는지를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사역의 열매를 보기 전까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단지 추측할 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매일 함께 살아가며 제자들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으로 가고 있다면, 결과는 결코 우리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으며,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사역과 일은 결코 결과를 최우선 가치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세워지고 길러진 관계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성령께서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관계를 만드시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

사도행전 20:1

“소동이 그친 후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면한 뒤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떠나니라.”

우리는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승리 직후의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와 그의 무리가 그들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제자들은 굳게 서 있었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만약 바울과 제자들이 승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면, 이것은 크게 축하할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사역은 결코 승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축하 파티를 열거나 승리 행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권면했습니다. 보통 권면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실패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승리를 축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은 결코 우리의 승리가 아니었고, 언제나 하나님의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행한 성찬식을 포함하여, 인간의 업적이나 인간의 승리를 기념하는 절기나 기념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절기와 기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축하하는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성령께서 만들어 내시는 관계들을 축하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이 제자들을 권면한 후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은 실수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지도 않습니다.

베뢰아 사람 소바더, 곧 부로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 부로(Pyrrhus)는 오늘 본문 시점보다 약 300년 전에 살았던 그리스 왕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고 평가받았던 베뢰아 출신의 소바더가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인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학자들 가운데는 그가 실제로 유대인이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아마도 그의 어머니 쪽이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사울과는 친구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인 바울은 그를 자신의 친족으로 여깁니다!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입니다.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의 유대인으로, 지난주 설교에서 등장했던 영웅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군도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그의 이름이 라틴어이기 때문에 아마도 헬라인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더베 사람 가이오입니다. 그는 그리스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따라서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더베는 학자들에 따르면 사실상 유대인 공동체가 거의 없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가장 신뢰했던 선교 동역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입니다. 우리는 모두 디모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직접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사람들인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등장합니다. 두기고, 그는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같은 의미의 아시아인이 아니라 오늘날의 터키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리스계 혈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바울의 제자로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빌레몬, 그리고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전달하도록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성경 시대에 아마도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였던 편지 전달 사역을 맡았던 것입니다!

드로비모, 그는 에베소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1장에서 그가 자신의 신분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병이 들어 바울에 의해 뒤에 남겨지기도 했습니다. 왜 이 모든 사람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록하는 사도행전 20장의 시작 부분에 언급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도들이 성령께서 일하실 때 성령께서 만들어 내시는 관계들을 기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업적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업적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만들어지는 모든 관계들을 기념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과 정확히 반대입니다.

우리는 1990년대 시카고 볼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우승이었습니다. 우승하지 못하면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들은 성취한 업적을 기념했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승리와 이익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들은 그 승리들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익이 사라지면, 그 관계들 역시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될 때 일어나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는지에 있어서도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며, 성령께서 만들어 내시는 관계들을 기념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형제나 자매는 여러분의 회사가 더 많은 이익을 내도록 도와주거나, 세상적인 영광을 함께 이루도록 돕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형제와 자매는 성령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이루실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목격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를 받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 주신 모든 관계들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기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바로 그 관계들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관계들을 통해 성령께서는 우리를 움직이도록 강권하십니다.

사도행전 20:1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냐로 떠났다.”

사도행전 20:2

“그 지방들을 두루 다니며 여러 말로 그들을 권면한 후에 헬라에 이르렀다.”

사도행전 20:3

“...유대로 가는 배를 타려 할 때 유대인들이 그를 해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다.”

사도행전 20:5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도행전 20:6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를 떠나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이르렀고 거기서 이레를 머물렀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움직임은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물리적인 이동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집이 임시적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정착했다(settling down)’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모두가 선교사의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움직이도록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움직이도록 부름받게 됩니다.

저는 사우스랜드 교회의 성 목사님이 이것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중국에 갔을 때 선교사로서 그곳에서 죽을 각오로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6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우스랜드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부르자, 성령께서는 그 형제자매들을 통해 역사하셔서 그를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으로 다시 부르셨고, 그는 사우스랜드 교회의 담임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교체할 때 일어나는 더 큰 영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친구들이 누구인가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여러분이 수백만 달러의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최고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추구하는 친구들로 둘러싸여 있다면,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자녀를 아이비리그 대학에 보내는 것이 삶의 모든 결정의 유일한 이유인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결국 자녀의 대학 입시에 맞추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하늘나라와 하늘의 상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형제자매들로 둘러싸여 있다면, 여러분 역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을 현재의 영적 상태에서 더 깊은 상태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도록 강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에게 어떻게 하면 코넬대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킬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주식을 사야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은 서로의 영적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형제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이 되어 그 형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움직임에 순종할 때, 그것이 항상 순탄한 항해인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헬라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해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을 보십시오. 그 일 때문에 바울은 다시 움직이도록 강권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를 움직이도록 강권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나, 사실 어디에 있는 누구라도 이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삿짐 회사를 부르고, 짐을 싸고, 새로운 도시에 정착하는 것,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한곳에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집에서 30년 동안 살면서 오랫동안 지역사회 중심 역할을 해 온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들은 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영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자리를 잡고 안정되었을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여정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일조도 넉넉히 드립니다.” “셀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저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을 때, 그것이 바로 제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고 연구하며,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는 이 형제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초대교회의 선교 현장 곳곳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헬라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유럽 최초의 교회 개척지인 빌립보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매우 비슷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수요일에 AMI 선교사님들을 만났을 때, 각자의 선교지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에 대한 간증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반(Coban)에 계신 존 목사님(P. John). 그분은 그곳의 학교와 교회에서 7년째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호치민시에 선교사들이 있고, 자카르타에도 있고, pekanbaru(Pekanbaru)에도 있으며, 베이징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 목사님(P. Jacob)은 몇 주 후 티베트의 한 지역으로 선교팀을 파송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탈리아에 계신 알레산드로 목사님(P. Alessandro)도 계십니다. 그분은 로마에서 남쪽으로 한 시간 떨어진 도시에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네,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로마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사역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탈리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 사람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 AMI 선교사들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을 통해 역사하고 계셨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듣는 동안,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영적인 안일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영적인 열정의 자리로 우리를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어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디모데와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아리스다고와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소바더와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가이오와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두기고나 드로비모와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들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쳇바퀴 속에 갇혀, 결국에는 모두 사라지고 다시는 기억되지 않을 것들을 좇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친구들은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말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영광을 최종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친구들은 결코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은혜와 긍휼 가운데 자신의 친구 관계와 공동체를 돌아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영적 삶으로 인도하시도록 성령의 지혜를 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일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정확히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정확히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평생 교회를 다녀온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볼 때, 오늘의 여러분이 30년 전의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까?

제가 예수님을 따를 때 일어나야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삶을 생각할 때 반드시 일어나야 할 또 하나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가졌던 가치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명예의 훈장처럼 여깁니다. 마치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성을 지키고 있는 것(keeping it real)"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에 머물러 있고 오랫동안 변하지 않은 것을 신앙의 인내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과는 거리가 매우 멍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게 될 텐데, 믿지 않는 사람이 한 말 가운데도 인생과 그리스도와와의 영적 여정에 매우 적절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하마드 알리의 말입니다. “50세가 되어서도 20세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는 인생의 30년을 낭비한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50세인데 믿음이 20세 때와 똑같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인생의 30년을 낭비했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려고 했던 귀중한 기회들을 놓쳤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25세이든, 30세이든, 45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만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을 구하지 않았으며, 성령께서 어디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찾지 않았고,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며 안주했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은 성장할 기회를 놓쳤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던 자리로 움직일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돌아보고 기도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꾸짖거나 낮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가졌던 미지근한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브리지 오브 더 벨리 교회를 통해 단순히 교회로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희미해져 가던 믿음의 불꽃이 성령께 의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성령께서 주시는 그 첫 번째 밀어주심(the first push)이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움직이라고 하실 때 여러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는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사역의 흐름과 추진력을 따라가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점점 더 쉽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인 근육을 단련하고, 기도를 통해, 또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점점 더 잘 듣게 될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그분께서 처음부터 원하셨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자리이며, 여러분이 본래 있어야 했던 바로 그 자리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예를 들어 5년 전과 똑같습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으며,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에 어떠한 성장도, 어떠한 깊어짐도 없는 상태입니까? 그리고 제가 더 깊어지는 성장에 대해 말할 때, 단지 교회에서 육체적으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그것이 BVC에서의 봉사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에 대해 점점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시는 음성에 점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기회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데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일정한 거리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의 삶을 유지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더 큰 축복을 부어 주시기 위해 여러분의 삶을 흔드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결코 경험하지 못할 것이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결코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자주,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우시는 관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현재의 자리에서 영적 깊이와 새로움의 자리로 옮기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형성되는 관계들을 통해,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리들을 통해,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품고,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회개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세상 가운데 있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과만이 중요했습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다른 누군가가 그 결과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저는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클 조던과 저 자신을 비교하는 유일한 경우가 있다면, 저는 결과와 승리만을 추구했던 제 욕심 때문에 깨뜨렸던 관계들을 돌아보며 후회합니다. 그리고 저는 마이클 조던 역시 수많은 업적과 영광을 얻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팀 동료들을 대했던 방식에 대해 후회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관계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믿는 자들과의 관계들이야말로,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저는 승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뻐하며 축하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를 위해 형성하신 관계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브리지 오브 더 밸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애리조나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연결하는 관계의 다리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